

야쿠트 구비서사시 ‘올롱호’ 연구 시론: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를 중심으로

김 중 순
(계명대학교)

❖ 국문초록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알타이 인문벨트는 문명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한반도의 고대문명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고고학을 비롯하여 민속학과 인류학 등에서는 이에 관해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해왔고, 그 가운데 하나가 구비서사시다. 구비서사시는 한국에서 독특한 전승의 양식으로 남아있지만, 알타이 인문벨트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주목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근에 우리에게 중앙아시아와 몽골, 그리고 시베리아의 일부 서사시가 소개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론의 목적은 시베리아에 위치한 야쿠티아의 구비서사시 올롱호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 데 있다. 올롱호는 최근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는 막중하다. 그동안 서사시 연구가 서구중심의 시각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올롱호는 서사시 연구에 있어서 보다 글로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나 구연방식이 서구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그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새로운 연구 실마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화시대에서 영웅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류의 사고와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야쿠티아의 민족역사 뿐만 아니라 10세기를 전후한 알타이 제 국가들의 형성과정까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론은 방대한 서사시 올롱호 원문의 한국어 번역을 촉진하고, 본격적인

내용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와 한반도의 구비서사시 전통을 비교하여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필 수 있다면 알타이 인문벨트 형성을 위한 중요한 담론이 될 뿐만 아니라 문명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올롱호, 서사시, 알타이 인문벨트,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1. 여는 글

야쿠티아(Yakutia)는 시베리아 북동쪽 쾨트머리에 자리 잡은 러시아 자치 국가인 사하공화국(Republic of Sakha)을 가리킨다. 그 면적은 약 300만Km²에 달해 한반도의 15배가 넘는다. 야쿠트 사람들은 원래 6세기에서 7세기 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동쪽으로 옮겨와 바이칼 호 주변에서 살던 민족이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침략을 받고 대략 13세기경에 레나강을 따라 북방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의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¹⁾ 그들은 스스로를 ‘사하’(Sakha)라고 했지만, 빌류이(Vilyui)강과 레나(Lena)강변에 살던 원주민들인 에벤키족(Evenki)은 그들을 ‘예켓’(Yeket)이라 불렀다. 1600년대 초반에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었고, 결국 ‘예켓’이 변해 ‘야쿠티아’(Yakutia)라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²⁾ 따라서 지금은 사하와 야쿠티아라는 두 가지 명칭이 자연스럽게 혼용되고 있다.

야쿠티아는 북극권의 동토대에 위치해 있어서 평균 기온이 1월에는 -39.6도, 7월에는 +19도로, 기온차가 무려 60도나 되는 혹독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
- 1) A.N. Gogolev, “The Yakut: Problems of Ethnogenesis and Cultural Formation,” *Sakhapoligrafizdat* 3, 1992, p.3. 더 구체적으로는 돌궐(突厥; Turkic Khaganate)이 745년에 멸망을 하고, 그 유민들이 북쪽 바이칼의 산악과 레나강 상류의 타이가 지역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시작되었다고도 한다.
 - 2) James Forsyth,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55. ‘야쿠트’는 나라를 지칭하는 ‘야쿠티아’와 달리 일종의 관형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야쿠트 민족’, ‘야쿠트 언어’ 등으로 사용된다.

있다.³⁾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야쿠트 공화국의 인구는 1백만 명이 채 못 되고, 그 가운데 야쿠트족이 약 45만 정도 추산된다.⁴⁾

이들은 언어적으로 투르크어군에 속하며, 놀랍게도 자신들의 민족어를 상당히 잘 보존하고 있다. 특히 야쿠트 민족어로 전승되는 구비서사시 ‘올롱호’는 엄청난 민속적 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투르크족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져 있다. 야쿠티아를 일컬어 ‘올롱호의 땅’(Land of Olonkho)이라고 하여 ‘올롱호’를 야쿠트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사하(야쿠티아) 공화국으로 탄생한 것은 겨우 1992년에 이르러서였다.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던 지난 4세기는 야쿠트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통째로 뿌리 뽑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20년대에 이르러 실시된 레닌의 종교정책과 민족정책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샤머니즘과 민족서사시 ‘올롱호’는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었다.⁵⁾

하지만 잃어버린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오늘날 야쿠트인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예를 들면 봄맞이 전통 민속 축제 ‘으호으아흐’(Ыһыах⁶⁾; Isseakh)의 재현이 그것이다.⁷⁾ 축제가 열릴 때면, 이들은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춤을 추는 「오오오하이」(Ohyoohai; Osuokhai)로 기념한다. 그것은 제의적 행위로, 매년 하지(夏至)가 되면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의식으로 진행된다. 서로 위로와 화해를 도모하는 축제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만남을 상징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축제 참가자들이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야쿠트 민족 전통의 역사는 무척이나 오래되었으나, 그 연구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9세기 중반의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다행히 ‘올롱호’

3) <http://protown.ru/information/hide/4364.html> (검색일: 2016.04.30)

4) <https://en.wikipedia.org/wiki/Yakuts> (검색일: 2016.04.30)

5) Marjorie Balzer, “The Sakha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 Miller (ed.), *State of the Peoples*, Boston: Beacon Press, 1993, p.235.

6) 야쿠트어는 문자가 따로 없어 공식적으로 1939년부터 키릴문자를 차용해서 표기하고 있다.

7) 김종순, 「야쿠트족의 민족축제 ‘으호으아흐’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9권, 2011.

가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가 되긴 했어도, 아직 한국 학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⁸⁾ 따라서 ‘올롱호’의 내용과 구조를 소개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시도하게 될 이 논문은 장차 시베리아지역과 한반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알타이 인문벨트의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11년 현지답사를 통해 도출해낸 야쿠트 민족 전통에 대한 몇 가지 결과⁹⁾에 2015년에 실시한 두 번째 현지답사의 결과를 덧붙인 내용이다.

II. '올롱호'의 기원과 전승

1. 기원

‘올롱호’는 개인의 창작이 아니다. 야쿠트 민족에 의해 집단적으로 전승되던 이야기가 전문 구연자에 의해 서사시의 형태로 확립되어 읊어지며 전승된 것이다.¹⁰⁾(Ivanov 2014: 978) 따라서 ‘올롱호’는 하나의 작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야쿠트 민족서사시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집합명사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Дьулуруйар Ньургун Боотур; Nurgun Boutur the Swift)』는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에 야쿠트의 민속학자이자 문학가인 오윤스키(Platon Oyunsky, 1893-1939)가 이를 처음 기록으로 남겼지만¹¹⁾, 그것이 결코 오윤스키 개인의 창작물은 아니다. 민간에 전승되던 수많은 옴니버스 형태의 작품들을 정리하여

8) 국내에 유일하게 소개된 자료는 강덕수 번역의 『엘레스 보오투르』(오고토엠펙, 2005)이다.

9) 「야쿠트의 종교혼합 현상에 대한 고찰: ‘아르치 지에테’(Archie Jiete)의 건립을 중심으로」(2011), 「야쿠트족의 민족축제 ‘오호오야호’에 관한 연구」(2011), 「야쿠트의 현대화된 전통혼례에 관한 상징인류학적 이해: 빅터 터너의 커뮤니티스를 중심으로」(2013).

10) Vasily Nikolaevich Ivanov, “Heroic Epic Olonkho-A Unique Phenomenon in the World Epic Culture,”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22(7), 2014, p.978.

11) *Дьулуруйар Ньургун Боотур*라는 제목으로 현재 야쿠츠크의 M.K. Ammosov North-Eastern Federal University에 소장되어 있다.

자신의 이야기로 엮은 것에 불과하다.

‘올롱호’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견해 차이가 매우 심하다. 야쿠트 민족이 독립적 집단으로 오늘날 사하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 탄생했다면 14-16세기쯤이 될 것이다.¹²⁾ 그런가 하면 ‘올롱호’의 등장을 745년에 멸망한 동돌궐의 역사와 관련을 짓는 견해도 있다. 사하 정부에서는 바로 그 시점으로 기준으로 삼아 2005년에 올롱코 탄생을 1250년 전으로 선포하였다.¹³⁾ ‘올롱호’의 연구가 주로 투르크-몽골이라는 문화적 콘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유전자가 남시베리아, 바이칼, 그리고 몽골의 서사시들과 동일함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올롱호’의 남방 원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야쿠트 조상들의 역사적 자취를 따라가 보면 ‘올롱호’는 그들이 투르크 세계의 일부로서 6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있었던 민족 이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 내용은 야쿠트 민족의 조상들이 알타이와 사얀(Sayan) 지역¹⁴⁾에서 살던 터키와 몽골 민족의 조상들과 가까이 교류하던 시대의 이야기로 짐작된다. 이 당시 투르크 세계는 2세기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쪼개지면서 각 부족마다 스스로의 살길을 찾아 나서 혹독한 고난을 경험한 바 있다. 운명적 갈림길에서 그들은 엄청난 공간이동과 함께 전쟁을 경험했고, 민족의 분산과 함께 합종연횡을 하는 동안 소위 ‘군사민주주의시대’(the time of military democracy)¹⁵⁾를 맞게 된다. 그리스 영웅시대가 그러했던

12) A.N. Alekseev, “К вопросу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якутского народа,” *Сборник науч. тр. Серия: Филология*. Якутск: Изд-во ЯГУ, 1994, С. 66–67.

13) Natalia M. Libakova, “Modern practices of regional and ethnic identity of the Yakuts (North Asia, Russia),” *Life Science Journal* 11(12), 2014, p.133.

14) 사얀 산맥은 몽골 북서부와 남시베리아 사이에 있다. 서부는 알타이 산맥의 동부 시작 부분이며, 동부는 예니세이 강과 바이칼 호수 남서부 끝 부분까지로 약 1,000km 가량 뻗어있다.

15) 이는 원래 L.H. Morgan이 사용한 용어로, 고대 그리스사회의 원시적 집단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권력 구조를 뜻했다. 이것을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받아들여 포편적 역사 용어로 사용하면서 주로 러시아 역사학자들이 단순한 권력조직 형태뿐만 아니라 원시사회의 파괴를 거쳐 계급사회로의 변환을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했다. 고고학적으로는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하고, 사유의 개념이 생겨난 때이기도 하다. 전쟁은 다른 집단을 약탈하고, 노예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이끄는 군사 지도자들은

것처럼, 전쟁이 일상이었던 그 때는 자연스레 군사 중심의 지배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원시사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고통스런 돌파의 시대였던 셈이다. 따라서 ‘올롱호’의 시대를 ‘국가시대의 전날 밤’(the eve of statehood)¹⁶⁾이라 부른 것은 ‘올롱호’가 출현했던 당대의 배경을 매우 적절하게 짚어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경험은 민중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생생한 싸움터의 모습이나 전쟁 영웅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쟁투와 위업이 서사적 구술의 원천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시베리아에 최북단에 자리 잡기는 했지만, 그들의 고된 여정은 남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다른 대부분의 고대 투르크 서사시의 발생지들인 남쪽과 교류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올롱호’가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 서사시와 같은 플롯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의 구조나 어휘에 있어서도 동질성이 발견되는 것이 교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영웅들의 명칭에 칸(khan), 메르겐(mergen), 보투르(botur)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알타이 서사시에서는 칸 뷰데이(Kan Byudei), 아이 카안(Ai-kaan), 칸 술루타이(Kan Sulutai)라는 인물들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올롱호’에서는 하안 자르그스타이(Haan-Djargystai), 그리고 하안 자아르스(Haan Djaarsyn)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한(han)’ 혹은 ‘칸(kan)’이라는 단어가 뿌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알타이 서사시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데 비해 ‘올롱호’에서는 단순한 이름으로만 사용될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학자

자연히 계급을 형성하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군사지도자들은 부족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구성원들의 개별적 힘은 쇠퇴하고 조직의 힘이 부상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는 계급화를 이루게 되고, 계급의 위계에 의한 독재가 힘을 얻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호머 시대의 고대 그리스, 고대 켈트와 게르만족, 그리고 노르만족 시대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B. Jessop and R. Wheatley ed. *Karl Marx'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Critical Assessments*. London: Routledge, 1999, p.653.

16) V.V. Trepavlov, “Eve of Statehood in Olonkho (an historian’s view of Yakut historic epic),” *Olonkho-Spiritual Heritage of the Sakha People*, Yakutsk, 2000, pp.24-26.

들은 야쿠트 사람들이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이 단어를 모르거나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¹⁷⁾

여성 영웅에게 붙는 쿠오(Kuo)라는 명칭이 현대 야쿠트어에서 완전한 속성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도 예로 들었다. ‘올롱호’에서 사용되는 쿠오(kuo)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다른 투르크족 서사시에도 비슷한 어휘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용감한 누르군 보오투르』에서 등장하는 여인들 아이으탈른 쿠오(Aitalyn Kuo), 투야르마 쿠오(Tuyaryma Kuo), 하아즐란 쿠오(Khachilan Kuo) 등의 이름이 그 예이다.

‘나쁜 놈 카라’라는 뜻의 Alyp Khara라는 인물의 명칭도 예로 들었다. 알립(Alip) 혹은 알프(Alp)라는 명칭은 알타이어로 영웅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올롱호’에서는 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경우다. ‘카라(Khara)’가 원래 투르크어에서는 검은색을 뜻하며 악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올롱호’의 악령 전사의 이름 알라 하라(Ala-Hara), 일레 하라(Ile-Hara), 뷔규스텐 하라(Byugyusten-Hara)에서 볼 수 있는 ‘하라(Hara)’도 투르크 전사들의 이름 마아다이 카라(Maadai Kara), 바아다이 카라(Baadai Kara), 카라 교스(Kara Kyos) 등에서 연유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힘이 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뉘쥬 뉘교(Myuljyu-Byogyo), 누르군 뉘교(Nyurgun-Byogyo)같은 이름의 등장인물도 있다. 야구트어 ‘뉘교(byogyo)’는 알타이어 텍테메이 뉘교(Tektemei-Byokyo), 테네크 뉘교(Tenek-Byokyo)등에서 연유한 것이다. ‘올롱호’에서 소를 키우는 노예는 시메호신(Simehsin)이라는 이름의 할머니인데, 알타이 서사시에도 시메호신(Shimehsin)이라는 이름의 여성 노예가 등장한다는 게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또 있다. ‘올롱호’에서 등장하는 yotugen(yotuget)이라는 단어는 모든 악귀들이 사는 지하의 공간이기도 하고, 악귀들이 인간을 납치해서 고문을 하는 곳으로 지옥을 뜻한다. 그런데 고대 투르크 민족들에게도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다고 짐작되는 otiikan(혹은 utiikan)이라는 단어가 있다. 오늘날 북 몽골 지역 향가이(Hangai) 산악의 숲 지대를 가리키는

17) I.V. Pukhov, *Yakut heroic Epic Olonkho*, Yakutsk, 2004, pp.65-66.

지명이다. 특히 이곳은 초기의 투르크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을 때 근거지로 삼았던 두 지역 가운데 동쪽의 중심지이기도 했다.¹⁸⁾ 따라서 Alyp이나 yotugen이라는 단어는 고대 투르크족과 몽골족들의 쟁투에서 생겨난 내러티브가 ‘올롱호’에 흘러들어간 게 틀림없다. ‘올롱호’에는 이처럼 알타이와 사얀 민족들의 서사시에 나타나는 여러 에피소드의 문장 구조나 서술방법에서 너무나 많은 유사점들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들은 ‘올롱호’가 언제 형성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야쿠티아의 오랜 고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야쿠트 민족과 투르크, 그리고 시베리아의 몽골 민족 조상들 사이에 서로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6세기 내지 8세기 때부터 야쿠트 민족의 조상이 되는 쿠르칸(Курыканы; Kurykan)¹⁹⁾들은 고대 투르크족과 교류가 있었고, 야쿠트 전설을 보면 그들이 교류했던 마지막 몽골족들은 바이칼 북쪽에서 사는 부르야트족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야쿠트 서사시는 후기 부족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계 중심으로 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애니미즘적 사고의 흔적들을 ‘올롱호’에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올롱호’가 야쿠트 민족 역사 자체의 “독특한” 콘텍스트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북방 원류설도 만만치 않다.²⁰⁾ 서사시의 플랫폼을 살펴보면

18) I. Ecsedy and W. Sundermann, “The Rise of the Turk Power”, *History of Humanity: From the Seventh Century B.C. to the Seventh Century A.D.* 3, ed. by J. Herrmann and E. Zurcher, London: Routledge, 1996, p.477. 서쪽의 중심지는 쿠차(Kucha; 庫車) 지역 북쪽에 있는 바이산(Baishan; 白山) 부근이었다.

19) 이들은 6세기경 바이칼 호수 주변에 정착했던 시베리아 민족 가운데 하나로 투르크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다. 초기 쿠르칸족은 예니세이 강변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바이칼 지역의 토착 몽골족과 혼합되었다. A.P. Okladnikov, *История Якутской АССР. Якутия до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русскому государству*, М.;Л.: Наука, 1955, С.308-310.

20) S.A. Tokarev, "Происхождение якутской народности"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о докладах и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АН СССР*. Т. 9. М.;Л., 1941, С.58-62.; A.N. Alekseev, "Древняя Якутия. Железный век и эпоха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н-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1996.

그 나이가 3000년이 넘어²¹⁾ ‘올롱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야쿠트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그들은 오늘 날에도 스스로를 인류 발생사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매우 특별한 종족이라고 믿고 있으며, 남방에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간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것이다.²²⁾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은 고고학적, 민족학적, 유전학적, 그리고 다른 여러 연구의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올롱호’ 자체가 그들의 태고적 원류를 말해주고 있다며, 설화적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내 세우는 여러 근거 가운데 하나는 ‘올롱호’의 구연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언어학적 발음의 원천성이다. 클르히(kylyhah)라고 하는 발성 방식으로,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성문음(聲門音; glottal sound)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는 음악문화에 있어서 음조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른 발생기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야쿠트 민족이 다른 투르크 족들과 접촉을 했던 시기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투르크 민족들의 음악전통에 남아있는 소위 ‘목구멍소리’(Throat singing)의 발성 방법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²³⁾ 심지어 한국의 판소리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서도 쉽사리 들을 수가 있다. 물론 미세한 음성학적 특수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거리임에 틀림없다.

아무튼 아직은 ‘올롱호’의 발생이 오늘날의 시베리아 사하 땅에서 이루어

21) Natalia M. Libakova, “Modern Practices of Regional and Ethnic Identity of the Yakuts (North Asia, Russia),” *Life Science Journal* 11(12), 2014, p.134.

22) 2011년과 2015년에 필자가 참가했던 Geocultural Images of Arctic 국제학술회의 때 발생설에 대한 이견(異見)은 그리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것은 봄맞이 축제 ‘오호오아호’가 민족정체성 함양을 목적으로 관주도(官主導)의 경향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다.

23) A.S. Larionova, “Kylyshah kak fenomen yakutskogo gorlovogo peniya,” *Vzaimodeistvie kultur narodov narodov Yakutii v 17-21 vv.* Yakutsk: RNMC IT i SKD im. Kulakovskogo, 2003, p.65.; A. Reshetnikova, “Performing Traditions of the Musica Embodiment Yakut, Tungus and Tungus-mongol epos,” 『계명대학교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5, p.215.

졌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올롱호’는 여전히 “따뜻한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을 잃어버린 낙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²⁴⁾

2. 전승

‘올롱호’가 도대체 몇 가지 종류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구비전승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수많은 올롱호”에 대해서 말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대략 200여개로, 개인 소장이나 해외에 소장된 단편 자료들을 제외하고도 그렇다. 이들 텍스트 가운데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새로이 보태진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 텍스트들은 당시의 서사 언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판된 ‘올롱호’ 텍스트들은 약 10여종이 된다.²⁵⁾

야쿠트 민족이 ‘올롱호’ 서사시를 가졌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 학자들과 폴란드 유배인들²⁶⁾에 의해서이다. A.F. Middendorf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공(功)은 ‘올롱호’의 원천 자료를 조사하고 보존했으며, 학술적 연구 방법론을 개발한 데 있다.²⁷⁾ 당시 ‘올롱호’ 구연자들은 유배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유배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끝마친 대상이기도 했다. 그들은 야쿠트 민속의 수집, 출판, 대중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적극적인 학자로 변신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올롱호’ 장르의 연구와 보존 문제에 대해 매우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4) V.S. Nikiforova, “Зимние сакральные сказывания олонхо[올롱호의 성스런 겨울 구송],” *Лаборатория комплексных геокульту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ктики: Дорожный проект*, 2015, p.16

25) Vasily Nikolaevich Ivanov, “Heroic Epic Olonkho-A Unique Phenomenon in the World Epic Culture,”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22(7), 2014, p.979

26) 우리에게 알려진 폴란드 유배인 학자로는 바츨라프 세로썬스키(Wacław Sieroszewski)가 있다. 그의 저서 *Народное устное творчество и верования якутов*은 『야쿠트인: 구비전승과 신앙』(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이라는 제목으로 김민수에 의해 부분적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27) I.A. Khudiakov, E.K. Pekarsky, S.V. Yastremsky, V.N. Vasiliev, P.A. Oyunsky, G.V. Ksenofontov, A.P. Okladnikov, I.V. Pukhov, G.U. Eris, N.V. Emelianov 등이 야쿠트 서사시 연구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은 그들의 본격적인 연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19세기 후반의 격변하는 세계사 속에서 그들은 소수민족으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나, 20세기 후반 소비에트 정권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소수민족 문화들과 함께 단 하나의 ‘사회주의’ 문화로 흡몰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야쿠티아가 혁명 이전에는 세계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어서 종교적 이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점이다.²⁸⁾ 이는 터키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혹은 몽골의 서사시가 이슬람이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과 다른 점이다. 야쿠트 서사시가 많은 시대적 문화적 변동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오히려 그러한 오랜 폐쇄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올롱호’의 생명을 지켜온 이들은 ‘올롱호수트’(Olonkhosut) 이라고 하는 전문 구연자들이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한다. 이야기를 펼치면 청중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청중들을 사로잡아 환각상태로 몰아가기도 한다. 말하는 능력이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전개하는 이야기의 플롯까지도 그런 기능을 한다. 올롱호수트는 보통 겨울철에 발라간(Balagan)²⁹⁾에 사는 가족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구연을 하게 된다. 연주하는 그 자세 또한 특이하다. 발라간의 한 가운데 놓인 난로를 등 뒤로 두고 나지막한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는다. 눈은 반쯤 감고 한쪽 귀는 검이나 손바닥으로 가린 채, 그리고 몸을 좌우로 서서히 흔들며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 마치 우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듯이.³⁰⁾

창작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올롱호’는 결국 이런 구연자들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들은 타고난 예술적 재능으로 당대의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상

28) 김중순, 「야쿠트의 종교혼합 현상에 대한 고찰: ‘아르치 지에테’(Archie Jiete)의 건립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5권, 2011.

29) 일반적으로 야쿠트인들의 집은 발라간(Balagan)과 우라하(Uraha) 두 가지가 있다. 발라간은 겨울 집이며, 나무를 가로로 연결시켜 길게 세우고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바깥에 진흙을 바르고 지붕을 흙으로 덮어 만들었다. 우라하는 여름 집이며, 나무 몇 개를 원추형으로 세워 그 위에 자작나무 껍질을 덮어 만든 집이다.

30) 우리는 2015년 6월 19일 오후 9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Churapchinskiy ulus의 Churapcha에 있는 자그마한 공회당에서 열린 ‘올롱호’ 구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 올롱호수트는 Valentin Isakov씨였다.

황을 즉흥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모노드라마처럼 혼자서 구술하면서 여러 등장인물의 역할을 동시에 맡아 이야기를 극화시킬 줄도 알았다. 또한 노래하는 재주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모국어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언어의 다양한 묘미를 표현해 낼 줄 아는 다중적 전문가였던 셈이다. 그들은 공인이었고, 서사시의 창작자일 뿐만 아니라 전승자이기도 했다.³¹⁾ 구연 자체가 훌륭한 일인극 무대이기도 했지만, ‘올롱호’ 전통의 자연스런 전승 공간이었던 셈이다. ‘올롱호’는 처음부터 극적 연출을 전제로 전개되기 때문에, 청중들은 물론이고 구연의 내용과 행위, 그리고 구연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예술장르인 셈이다.

‘올롱호’는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 기억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한 시대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담론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살아가며 겪었던 모든 우여곡절과 역사적 위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서사시를 듣게 되면, 마치 자신이 그 자연의 환경에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올롱호’가 구연될 때면 청중들은 매우 긴장해서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직접 반응하며 참여하기도 한다. 구절(句節)마다 동의를 표하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텍스트를 고치고 보태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첨삭은 그저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두운과 각운, 전체적인 리듬과 흐름, 그리고 다른 형식적인 면들도 고려된다.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서사시의 장르가 형성될 수 있었던 조건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올롱호’는 그것을 구연하는 사람과 듣고 즐기던 민중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올롱호’ 가운데는 이른 저녁부터 새벽에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번에 13-14 시간을 예사로 읊는 것도 있다. 이것은 8천에서 1만행 정도 되는 중간 길이의 경우인데, 그보다 훨씬 긴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명사수 에르베크테이 (Эрбэхтей-Бэргэн; Erbekhtey the Sharpshooter)』는 20,000행정도이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Дьбулуруйар Ньургун Боотур; Nurgun Botur the Swift)』는 36,000행이나 되며, 『멋진 얼룩말 (Алаатуйр Ala Tuугun)』은 49,20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890년대에 베르호얀스크

31) B.N. Putilov, “Typology of Folk History,” *Typology of Folk Epics*, Moscow, 1975, p.181.

(Verkhoyansk) 지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만차리(Manchary)라는 올롱호숫은 한 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구술을 했다³²⁾고 하니, 그 길이를 짐작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서사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인도의 『마카브카라타(Makhabkharata)』나 키르기즈의 『마나스(Manas)』³³⁾에 비해서는 짧지만, 『일리아드(Iliad)』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분량이다.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올롱호’를 구술하는 것은 보통의 암기력이나 정신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재능을 타고 났거나, 혹은 엑스터시 상태에 이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이 그런 기술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통과의를 거쳐야 한다는 보고는 없지만, 이는 샤먼의 접신 능력을 연상케 한다.³⁴⁾

과거에는 ‘올롱호’ 구연자들이 이보다 훨씬 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녹음된 자료가 없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웅 서사시들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다. 뿐만 아니라 ‘올롱호’의 여러 작품들은 서로 섞이기도 하고 생략 혹은 첨가된 것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쿠트 서사시의 기본 성격이나 형태는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상호 보완적 성격 탓이라고 할 수 있다.

32) Vasily Nikolaevich Ivanov, “Heroic Epic Olonkho-A Unique Phenomenon in the World Epic Culture,”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22(7), 2014, p.980.

33) 『마나스』의 경우 분량이 인위적으로 10만 행에 이르기까지 늘어졌고, 나중에는 성스러운 숫자라고 하여 백만 행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34) 티모페예프 테플로호프(I.G. Timofeev-Teploukhov)라고 하는 유명한 올롱호숫의 구술을 1906년에 바실리에프(V.N. Vasiliev)가 채록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거의 50년이 지난 1959년 3월에 ‘올롱호’ 연구의 전문가인 에르기스(G.U. Ergis)가 다시 그를 만나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다. 그의 구술을 다시 듣고 바실리에프의 채록 내용과 비교를 한 것이었다. 에르기스는 그가 1906년에 채록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구송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테플로코프는 1869년에 태어난 사람이었으니, 그때 나이가 90세였다. Vasily Nikolaevich Ivanov, “Heroic Epic Olonkho-A Unique Phenomenon in the World Epic Culture,”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22(7), 2014, p.980.

III. '올롱호'의 내용과 구조: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의 경우

1. 내용

‘올롱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오윤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³⁵⁾

아주 먼 옛날에 사하민족 조상의 나라가 지상세계에 세워졌다. 그곳에서는 해가 솟아올라 춤을 추고, 나뭇잎들은 소리를 내고 피고 지며, 흐르는 물은 말랐다가 다시 풍부하게 흐르곤 했다. 땅은 거대한 바다 위에 놓여 있었고, 산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이라 선신(善神)과 악신(惡神)들의 끝없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싸움을 끝내기 위해 이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각각 따로 살기로 하고, 그 세계의 시조들은 청렴한 신 오둔 비스(Odun Biis), 징기스 한(Jenghis Khan), 질가 도온(Jilga Toyon)을 운명의 판관으로 삼았다.

선신 유롱 아르 토온(Urung Aar Toyon)에게는 아이윙가 시에르 토온(Aiynga Sier Toyon)이라는 동생이 있었다. 그의 아내 아이으 누오랄진 호툰(Aiyu Nuoraljin Khotun)은 임신한지 9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배속에서부터 웃고 소리 지르다가 굴러 떨어져 나오더니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겁이 난 세 판관들은 이 아이를 지하세계에 사는 예언자 노파에게 보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이고, 세상을 다 파괴할 영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세 판관들은 아이를 빙빙 돌고 있는 철산(鐵山)의 팔각기둥에 묶고, 적이 쳐들어 올 때만 그들을 쳐부술 수 있도록 풀어주기로 했다. 이 아이가 바로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Nyurgun Botur)이며 앞으로 인간을 지키는 영웅이 될 것이다.

한편 하늘의 신이 인간을 땅위에 살도록 사하 사른 토온(Sakha Saaryn Toyon)과 사브이아 바이 호툰(Sabyia Baai Khotun)을 먼저 내려 보냈다. 그들은 하늘에서 백마가 되어 내려 온 출산의 신 아이흐트(Aiyhyt)의 도

35) 영어 번역본(Oynsky 2014)을 위주로 했지만, 야쿠트어 원문과 러시아어 번역본과의 대조를 위해 계명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Maximova Sasha 양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또한 야쿠트 민속박물관장인 Reshetnikova 박사 팀이 2015년에 제작하여 보내 준 애니메이션 『Nurgun Botur the Swift』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움으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오빠는 쿤 지리비네(Kun Jiribineh), 여동생은 투야르마 쿠오(Tuyaryma Kuo)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빠 쿤 지리비네가 자라 천상과 지하 세계의 영웅들과 힘겨투기를 제안했지만, 악신인 워트 우수타크(Uot Uhutaky)에게 지고 동생 투야르마 쿠오마저 뺏기고 말았다. 이를 알게 된 판관들은 묶여있던 뉴르군 보오투르를 지상 세계로 보내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뉴르군 보오투르는 온갖 힘자랑을 하며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했고, 신들로부터는 말을, 대장장이로부터는 무기와 갑옷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동생 유롱 율란(Urung Uolan)의 신부감 투야르마 쿠오(Tuyaryma Kuo)가 흰 두루미가 되어 날아와 도움을 청하는 꿈을 꿨다. 남동생 유롱 율란이 자신의 신부감 투야르마 쿠오를 구하러 가자 이번에는 뉴르군 보오투르의 여동생 아이탈른 쿠오(Aitalyn Kuo)가 악신 요소호 하르브르(Yosyokh Kharbyr)에게 납치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뉴르군 보오투르는 그 악신을 물리쳐 여동생을 구했다.

한편, 신부감 투야르마 쿠오를 구하러 갔던 남동생 유롱 율란은 악신 워트 우수타크(Uot Uhutaky)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 뉴르군은 동생 유롱 율란의 복수를 하러 지하세계로 내려와 동생의 신부감 투야르마 쿠오의 도움을 받아 워트 우수타크를 죽였다. 그리고 생명의 물로 동생 유롱 율란을 살려내고, 신부감 투야르마 쿠오와 그의 오빠 쿤 지리비네, 그리고 함께 잡혀있던 44명의 전사들을 구했다.

이제 뉴르군 보오투르는 동생 유롱 율란과 함께 쿤 지리비네의 여동생 투야르마 쿠오에게 청혼하러 갔다. 청혼 경쟁자가 많아 유롱 율란은 팔랑뻘³⁶⁾을 활로 쏘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후에야 결혼할 수 있었다. 유롱 율란은 드디어 투야르마 쿠오와 결혼하여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갔고, 9일 동안 결혼 잔치를 벌였다.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악신 워트 우후무(Uot Uhumu)가 투야르마 쿠오의 마음 중 1/4을 가지고 있었기에 임신 중인 그녀를 납치해서 아기를 잡아먹겠다고 했다. 투야르마 쿠오는 출산의 신 아이흐트에게 도움을 청해 아기를 감추었다.

유롱 율란과 투야르마 쿠오의 이 아들은 자라서 부모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아들의 이름은 오호 툴라야흐(Ogo Tulayakh)였다. 뉴르군 보오투르는 워트 우후무(Uot Uhumu)와 처절한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승리를 했

36) 야쿠트어로 сыбайы(스아가이)라고 하는 것을 Reshetnikova의 한국어 더빙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다. 동물의 발굽 관절뼈를 말한다. 신들이 투야르마 쿠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의 영혼을 금으로 만든 '스아가이'에 넣어 하늘에 걸어두었다.

다. 부모를 찾아 나섰던 오호 툴라야흐는 아버지 유룽 율란을 찾아낸 뒤 어머니 투야르마 쿠오도 찾고, 기진맥진한 뉴르군도 발견했다. 투야르마 쿠오는 뉴르군 보오투르에게 젓을 먹여 힘을 회복시켰다. 뉴르군 보오투르는 오호 툴라야흐에게 그의 신부가 하아즐란 쿠오(Khachilan Kuo)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빨리 가서 청혼하라고 했다. 그리고 오호 툴라야흐는 뉴르군 보오투르에게 크스 뉴르군(Kys Nyurgun)이라는 여자 영웅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크스 뉴르군을 찾아 나선 뉴르군 보오투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청혼을 했다. 이에 크스 뉴르군은 험겨루기를 해서 자기를 이기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뉴르군 보오투르가 이겼지만 크스 뉴르군은 약속을 깨고 지하세계 아바스 알르프 하라(Alyp Khara)에게로 도망을 갔다. 뉴르군 보오투르는 아바스를 물리치고 크스 뉴르군을 구했다. 하지만 뉴르군 보오투르에게 모욕을 당한 크스 뉴르군은 그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둘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어 3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싸움이 크스 뉴르군의 탓이라며, 최고신 유룽 아르 토른의 여섯 샤먼들이 싸움을 말렸다. 그리고 크스 뉴르군을 불 위에 매달아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었다. 크스 뉴르군은 더욱 아름답게 되었다.

샤먼은 크스 뉴르군의 동생 하안 자르크스타이(Khan Jargstai)와 아이탈른 쿠오(Aitalyn Kuo)의 결혼을 예언했다. 한편 오호 툴라야흐(Ogo Tulayakh)는 하아즐란 쿠오(Khachilan Kuo)와 결혼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아바스 악신이 방해했지만, 뉴르군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뉴르군 보오투르와 신부인 크스 뉴르군, 그리고 신부의 동생인 하안 자르크스타이와 아이탈른 쿠오는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고 우랑하이 사하민족의 보호자로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야기는 바이칼 호수로 짐작되는 태고의 바다를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이으(Aiyii) 부족 영웅의 주거지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야쿠트인들이 신화적 바다로 여기는 곳이기도 하다. 결국 사하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조상들은 어떠한 삶을 영위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 영웅 뉴르군 보오투르가 있었다. 특히 인간이 처음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수많은 악한 신과 적들의 공격을 그 영웅이 막아내었고, 급기야는 인간과 결혼하여 행복한 나라 사하를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다. 말(馬)과 무기를 어떻게 얻게 되었으며, 약탈과 구출의 과

정에서 마술적이고 초월적이면서 비범하기도 한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매우 자세하게 묘사된다. 결국 ‘올롱호’는 신의 자손으로서 우랑하이³⁷⁾ 사하 민족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신들은 자기만의 운명을 지니고 있어 때로는 자연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회적 실체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의 신성은 모든 사물과 인간에게 깃들여 있다. 그들에게는 각기 자기의 영역이 주어지고 힘의 서열이 있으며, 나름대로 질서도 있다. 그들은 여기서 ‘세계 창조의 때’, 혹은 ‘세 개의 영역이 구분되는 때’ 등으로 시간의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풍경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묘사하여 행위 공간을 그려내는가 하면, 인물의 생김새나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를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해내기도 하고, 적을 물리친 후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창조적 삶을 그려내기도 한다.

물론 위의 줄거리에서는 전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건과 사실들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등장인물의 이름들, 말을 비롯한 동물 조력자들, 각종 변신술, 무기들, 공간의 이름들, 전쟁을 통해 이기고 지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다양한 부족들, 축제의 진행과정, 여러 노래의 다양한 가사 등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연적인 요소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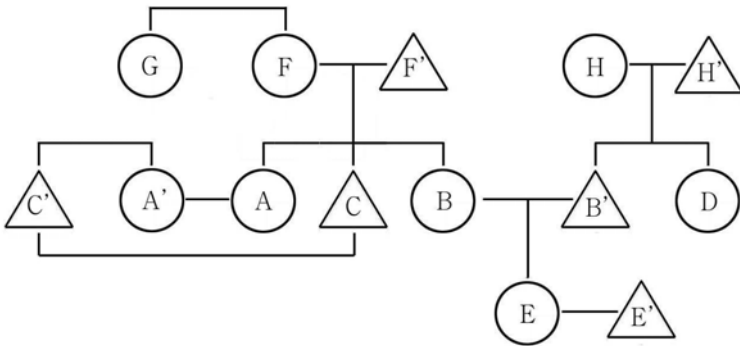
2. 구조

이야기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의 선율로 이루어져 있다. “친족의 보호”가 첫 번째 선율이라면, “영웅적 중매”(hero matchmaking)가 두 번째 선율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악신이 여성, 특히 여동생을 약탈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주인공 영웅 뉴르군 보오투르가 나서서 구출하고, 구출된 여성은

37) 우랑하이(Уранхай; Urankhai)는 문자적으로 ‘용감한 무사’라는 뜻인데, 야쿠트인들이 스스로에게 붙이는 별칭이다. 중세 몽골 고원의 유목민들이 알타이 투반인, 야쿠트인들을 가리키던 말로, 10세기부터는 중국 문헌에도 언급이 된다. 몽골인들은 자신들보다 북쪽에 사는 수렵민족을 우랑하이라고 불렀고, 명나라와 조선에서는 두만강 일대의 만주 지방에 살던 여진족을 우랑하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야쿠트 민족 기원에 대한 또 다른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Pamela Kyle Crossley, “An Introduction to the Qing Foundation Myth,” *Late Imperial China* 6(2), 1985, pp.13-24; 최기호,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여행 (아시아 편)』, 박문사, 2009.

형제 혹은 친족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단락이 이루어진다. 아래 14명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천상계의 두 집안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이 지상계에 내려오면서 상호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이들의 혼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A: 뉴르군 보오투르(Nyurgun Botur) - A': 크스 뉴르군(Kys Nyurgun)
- B: 유룽 율란(Urung Uolan) - B': 투야르마 쿠오(Tuyaryma Kuo)
- C: 아이탈른 쿠오(Aitalyn Kuo) - C': 하안 자르크스타이(Khan Jargystai)
- D: 쿤 지리비네(Kun Jiribineh)
- E: 오호 툴라야흐(Ogo Tulayakh) - E': 하아츨란 쿠오(Khachilan Kuo)
- F: 아이옹가 시에르 토윤(Aiynga Sier Toyon) - F': 아이의 누오랄진 호툼(Aiyy Nuoraljin Khotun)
- G: 유룽 아르 토윤(Urung Aar Toyon)
- H: 투야르마 쿠오(Tuyaryma Kuo) - H': 사브이아 바이 호툼(Sabyia Baai Khotun)



뉴르군 보오투르의 가계도

이 가운데 D와 G를 제외한 12명은 많은 곡절 끝에 각각 A-A', B-B', C-C', E-E', F-F', H-H' 등으로 6쌍의 혼인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 이야기의 결론이다. 결국 결혼은 여성들의 교환을 통한 남성 집단의 통합인 셈이

다.³⁸⁾ 더구나 약탈과 구출의 구조는 사회집단 밖에서 결혼 배우자를 구하는 관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결혼 배우자 범주의 지정이 규칙에 의해 정의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집단 간에 여성의 교환을 통해 동맹을 형성할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한 족외혼(exogamy)의 흔적이다. 특히 원시 사회에서 적대적인 가계의 하위세대 남성들 간에 누이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근친상간의 규칙과 금기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올롱호’는 양적으로 긴 장편이고, 수많은 등장인물과 사건들이 뒤얽혀 있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에피소드들이 동일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서사구조는 의외로 간단한 편이다. 이를 대략 다음과 같이 6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³⁹⁾

1. 도입: 시작부분은 주로 영웅이 살고 있는 나라와 신목(神木)에 대한 묘사다. 영웅의 거쳐, 재물, 그리고 무기에 대한 묘사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영웅의 자화상이 그려지고 있다.
2. 발단: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제시된다.
3. 전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장애물이 극복된다.
4. 위기: 구혼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적들과의 겨루기에서 승리한다.
5. 절정: 고향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더 큰 장애물과 과거에 물리쳤던 적들과 그의 백성들이 꾸미는 음모를 극복한다.
6. 결말: 고향으로 귀환하여 아내(자녀들과 친족)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며, 지금도 우랑하이 사하 민족은 잘 살고 있다.

‘올롱호’의 주제가 “친족의 보호”와 “영웅적 중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야기를 형성하는 배경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축으로 세워져 있다.

“공간”은 유목을 위한 초목이 풍요로울 뿐 아니라 사냥하기에도 좋은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인간, 즉 야쿠트 민족이 탄생한 최초의 땅으로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었다. 그들은 안 알라흐촌 호툰(Aan Alakhchyn Khotun)을 섬

38) Claud Lévi-Strauss,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Boston: Beacon Press, 1969.

39) N.V. Emelyanov, *Siujety yakutskykh olonkho*, Moscow, 1980, pp.11-12.

졌는데, 이는 모든 생명과 성장하는 것들의 대지모신이며 신목 알 룽 마스(Aal-Luuk-Mas)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신목은 우주, 불멸, 그리고 안식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이 숲의 원형 속에 신목은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층에서 살아가는 도덕적 존재는 두 번째 층인 중간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복지를 담당한다. 그곳에는 생명수인 풍요의 물방울(ilgeh)이 그 가지에서 떨어진다. 세 번째 층인 뿌리 쪽에는 생명수를 상징하는 하얀 젓이 흐르는 호수가 있어 차츰 흰색으로 바뀌고 있다. 신비한 나뭇가지들이 우주의 여신에게 열리면 영웅들에게 축복이 내려진다. 이 나무는 하늘의 축복과 행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밝은 이미지이다. 나무의 뿌리는 하층 세계에까지 닿아 멈춰 아치형 배경을 만들어내고, 소떼들을 돌보는 선남선녀의 목동들이 젓을 짜서 걸어놓을 수 있는 기둥이 된다.

이 신목의 꼭대기는 흰색으로 빛나는 최고신 유롱 아르 토운(Urung Aar Toyon)의 나라에까지 치솟아 그의 말뚝이 되고, 그곳에는 그의 부인인 아중가 시에르 호툰(Adjynga Sier Khotun)도 함께 있다.⁴⁰⁾ 그들은 ‘우랑하이 사하’라고 하는 맑은 부족 아이오(Ayii)의 조상이 되고,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아이오 신들을 믿어 모든 자연에는 신성함이 깃들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가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지킨다고 믿는다. ‘올롱호’에서는 이처럼 모든 자연이나 영웅들이 위엄 있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곳은 우주의 중심이며 자신들의 나라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변방일 뿐이다.

40) 여덟 개의 틀이 갖추어져 있는/ 날찍한 아래쪽 원 위/ 불타는 듯한. 세 개의 맑은 하늘 꼭대기에/ 우유 빛처럼 하얀 머리칼에/ 흑담비 세 마리로 만든 높은 모자를 쓰고/ 다이아몬드 빛깔의 깃털로 장식을 했네/ 사람들은 그가 왕관을 썼다고도 하고/ 사람들은 그가 지도자라고도 하네/ 흰색의 유롱 아르 토운이시여/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부인 아중가 시에르 호툰이시여/ 마치 맑은 대낮처럼/ 마치 빛나는 불꽃처럼/ 그 얼굴은 태양을 깜빡이게 하고/ 그 불은 은빛보다 더 맑도다/ 마치 석양이 그러하듯 발그레한 홍조를 띤 채. ... 그들은 시간을 창조했으며/ 광채가 비치는 아이오 부족 -/ 아름다운 보가투르는 그 아들들이며/ 아름다운 딸들은 그 등에 태양빛으로 끈을 맨 채/ 그들은 태양이 빛나는 마을에 살고 있네/ 그들을 일깨우는 이들은 사면들이고/ 우다간들은 그들의 시중을 든다네. P.A. Oyunsky, *Olonkho: Nurgun Botur the Swift*, Folkstone: Renaissance Books, 2014, p.9. (번역은 필자의 것)

“시간”은 이 공간 즉 중간세계인 땅위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까닭이 이야기되면서 작동되는 것으로 비롯된다. 그것은 곧 인류의 역사로 설명된다. 인간은 정의와 진리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위업을 이루어냈으며, 그것이 바로 모든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언어의 형식이나 구술의 힘을 빌려 묘사되는 주인공들의 쟁투는 결국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종착지인 혼인잔치에 이르기 위함이다. 그들은 이로써 영웅이 될 수 있는 높은 자질을 부여받게 되고, 그것은 영웅에게 주어지는 가치실현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 시간은 결국 악의 세력들과 벌이는 대규모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이으족들이 으호으아흐라고 하는 큰 축제를 벌이는 것은 바로 이때다. 영웅의 이미지는 가족의 가치로 대체된다. 등장인물들의 궁극적 종착지가 혼인 잔치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 잔치를 통해 주인공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으로서의 덕목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종착지이면서 동시에 세상이 창조되는 태초의 시간이고, 이 태초의 시간은 완벽한 ‘황금의 시대’이며, 모든 시작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 시간은 조상들이 실제로 활동하며 다음에 올 순서를 미리 예정해둔 때였고, 나라의 역사에 동이 틀 무렵이었다.

‘올롱호’의 서사적 구조는 주인공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귀향에 이르기까지 생애 연대기적 진행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를 비롯한 대부분 ‘올롱호’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IV. '올롱호'의 구연(口演) 전통

알타이 민족들은 크게 만주통구스족, 투르크족, 그리고 몽골족이 각기 분파를 짓기도 하고 서로 섞이기도 하면서 광활한 스텝지역의 유목 전통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구비서사시의 개략을 보면, 몽골 분파인 부리야트족의 서사시는 신화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고형(古型)의 주술서사시⁴¹⁾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륙 중앙아시아 중심의 영웅 서사시에 대한

41) Shamanic epic은 일반적으로 무속서사시로 번역이 된다. Shamanism을 일반적으로

초기형태로 한국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투르크족의 서사시는 보다 역사적 사실이 개입되어 있어 후기 형태인 영웅서사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야쿠트의 ‘올롱호’는 역사영웅의 요소와 주술적 요소 양쪽 다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 지역으로, 구비서사시의 보편적 원리를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주술서사시와 영웅서사시의 형식과 내용은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경계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한다. 주술서사시는 신화적이고 태곳적 창세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와 관련된 치병(治病)과 기복(祈福)의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소위 실용적 성향도 강하다. 그러나 영웅서사시는 시적 언어를 구사하며 웅변의 열정을 바탕으로 삼아 피를 흘리며 악을 물리치고 민족을 지켜내는 영웅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올롱호’는, 대부분의 북극 영웅서사시가 그러하듯이, 샤머니즘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때는 똑 같이 존재했었던, 혹은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이들 두 종류의 서사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며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용감한 뉴르군 보오투르』는 신통력을 지닌 영웅이다. 주술적 성격과 영웅적 성격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이 서사시의 주인공은 불사의 육체와 강력한 힘을 지녔다.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변신술에다,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까지 겸비하여 지상세계를 악한 신 아바스들로부터 보호하였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불의 바다를 건너 지하세계의 강적 아바스 전사를 무찌르고 사하 민족의 시조모가 될 운명을 타고난 투야르마 쿠오를 구출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동생 유룽 율란과 결혼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시 천상 세계의 강적 아바스 전사에게 납치되고 만다. 뉴르군 보오투르는 이번에도 그곳으로 날아 올라가 아바스를 쓰러뜨리고 그녀를 구출한다. 그

무속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속은 어디까지나 샤머니즘의 한국적 특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번역에 세계 종교적 보편성을 담기는 어렵다.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나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샤머니즘마저 무속이라고 일반화해서 번역할 수는 없어 ‘주술서사시’라고 한다. 주술(呪術, magic)은 샤머니즘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고, 종교의 원시적인 한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후로 지하와 천상 세계의 악신 아바스들은 그가 두려워 감히 중간 세계를 침범할 수 없게 되었고, 사하민족들은 번성하게 되었다.

‘올롱호’의 주인공은 이처럼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주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방해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영웅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이는 ‘올롱호’가 주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주술서사시에서 출발하여 영웅서사시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소위 ‘군사지배구조시대’가 도래 했을 때부터였다. 그러나 20세기 연구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올롱호’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부분 주술적 성격을 잃어버린 상태였다.⁴²⁾ 영웅적 능력이 주술의 능력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제주도 무속서사시 『차사본풀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주술적 성격이 더 강한 편이다.⁴³⁾ 주인공 강임이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강임은 이승의 아전으로서 고을 수령의 명령을 따라 저승에 다녀왔을 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했다. 이승에서 일어난 억울한 죽음의 문제는 강임이 아니라 염라왕이 직접 나타나 해결한다. 이처럼 저승이나 지하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이 무속서사시에 자주 나타나기는 하나 주인공은 단순히 신적 존재에게 주술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처분을 기다릴 뿐, 자발적으로 영웅적 행위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 결국 한국의 서사시는 대부분 중앙아시아나 야쿠트와는 달리 영웅담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주술적 성격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러한 특징은 서사시의 구연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술서사시 구연자들은 대부분 무당들이다. 무당들은 주술과 문학과 음악의 협동으로 구연을 실시한다. 그들은 숙련된 신어머니 아래에서 신딸의 자격으로

42) http://www.yakutiatoday.com/region/culture_olonkho_in_depth_02.shtml (검색일: 2016.04.30.). 1944년 P.T. Stepanov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종교적(혹은 주술적) 민속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아니면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 이 엄청난 현상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태고의 언어와 자생적인 민속 철학, 마술의 힘으로 악의 힘에 대항하는 치절한 투쟁 등을 담고 있다.”

43) 서대석, 「한국신화와 만주족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7권, 1992.

전승된 구절을 암기하고 독자적인 작시를 연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만 비로소 독자적인 서사시 구술이 가능해지는 것은 중앙아시아나 야쿠트 지역의 구비서사시 구연 담당층들이 처한 사정과 비슷하다. 영웅서사시의 기능이 자기네 부족의 풍요와 영광을 노래하고 경쟁부족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구연 기술이 신에 의한 신비한 은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다.⁴⁴⁾

앞서 ‘울롱호’는 울롱호숫에 의해 구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울롱호’가 독립적으로만 구연되는 게 아니라 으호으아호 축제가 벌어질 때 일종의 제의적 주문(呪文)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때 축제를 주관하는 이는 알그스췌(Algyschyt)이라는 이름의 사제이다. 그는 사제로서 축제를 주관하는 일이 주된 업무이다. 축제 중에 벌어지는 ‘울롱호’의 구연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부차적인 일일 뿐이다. 이를 미루어 으호으아호 축제는 주술 중심이 되면서 알그스췌가 담당⁴⁵⁾하게 되고, ‘울롱호’의 구연은 울롱호숫이라고 하는 전문 광대의 몫으로 분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영웅서사시 『마나스』(manas)에 서도 볼 수 있다. 『마나스』의 전문 구연자인 마나스치(manasci)가 있지만, 동시에 제의가 이루어질 때 샤만의 역할을 하는 박시(bakshy)도 있다.⁴⁶⁾ 이들은 시인이고 음악가이면서 사제이면서 치료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사시 『마나스』도 원래의 주술적 속성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마나스치라는 구연 전문가에 의해 구연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서사시는 주술적 속성이 약해졌지만, 영웅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경우라

44) 물론 편수나 심방들도 구연을 하지만, 주술적 힘이 상당히 쇠퇴하여 그저 독경(讀經)에 의지해 단순히 점복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을 독립적인 구연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다.

45) 우리는 Churapchinskiy ulus, Churapcha, 2015년 6월 20-21일에 열린 으호으아호 축제를 주관한 알그스췌 Artemiev Aleksandr씨를 만나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 우즈베키스탄 『알파미슈』(Alpamysh)를 비롯한 여러 구비서사시의 경우에도 전문 구연자들이 지역에 따라 ozan, bakshy, semeteychi, ashyk, dastanchy, jyrav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그러나 이런 명칭이 단순히 지역성 때문인지 아니면 기능 때문인지는 현지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 할 수 있다.

마나스치나 올롱호숫, 그리고 한국의 무당들이 행하는 구술을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에서는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하다가도 서사시를 구술할 때는 엄청난 어휘력을 자유롭게 구사한다. 엑스타시에 빠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구비서사시의 근원은 주술서사시임을 알 수 있으며, 영웅서사시에 주술적 내용이 남아있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서사시	전문 구연자	사제 혹은 주술사
야쿠티아	올롱호(Olongho)	올롱호숫 (Olongkhosut)	알그스췌트 (Algyschyt)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마나스(Manas)	마나스치 (manasci)	박시 (bakshy)
한국	무속서사시	무당	

서사시는 결국 구연방식에 따라 작품의 서술구조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말과 노래의 교체로 이루어지느냐 또는 단조로운 창으로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산문과 울문의 배열이나 비중이 결정되고, 반주를 위해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울격도 달라진다. 또한 서서 노래하느냐 앉아서 노래하느냐, 반주자가 따로 있느냐 아니면 구연자 스스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 구술의 호흡도 달라진다.

‘올롱호’는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와 마찬가지로 따로 악기의 반주 없이 단순히 목소리로만 운율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알파미쉬』 경우에는 두 줄을 통겨 소리를 내는 두타르(Dutar), 활로 문질러 소리를 내는 카만체(Kamancheh) 같은 악기를 스스로 연주하며 단조로운 가락으로 곡조를 넣어 부르기도 한다. 반주가 아예 없거나 반주자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자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기에 추임새나 너름새는 발달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연 형태는 공연예술로서 세련된 연희창과는 다른 구송창의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의나 굿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청중을 상대로 장구나 북 또는 징과 같은 타악기의 장단에 맞추어 구연을 하는 한국 무당의 주술서사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웅서사시의 형태를 띠는 ‘울릉호’는 구연 자체가 잘 발달된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제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영웅서사시가 드문 한국의 경우에는, 연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판소리⁴⁷⁾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형태다.

V. 닫는 글

구비서사시의 형성과 전개는 그 전승·향유 집단의 역사 전개 과정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그 집단의 삶의 양상, 그리고 거기에 연유하는 역사의 전개 과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종족의 연대기’이며 풍습과 전통의 생생한 기억이다.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쩌면 서사시 그 자체가 체계적인 역사 기록에 대한 필요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모른다. 서사시는 한 민족의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의식과 사상에 대한 고귀한 기록이며, 그들이 처했던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민족들의 발전단계에 관한 파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시가 환상적이고 허구로 보일지라도 그 기저에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실제적 사건의 기억(recollection)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과 자연현상 등은 그들의 환상 속에서 서사시 창작자에 의해 신화적, 영웅적 치장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다.

서사시가 부족체계의 해체와 함께 국가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울릉호’ 역시 야쿠트인들의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영웅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의 가치에 대한 기반 위에 국가라는 공동체를 쟁취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47) 한국의 판소리는 문자로 형성된 소설이 나온 후인 18세기에 이르러 등장했고, 내용과 구연의 형식도 별개의 장르로 발전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발생 기원과 함께 알타이 서사시와의 친연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야쿠티아는 투르크와 몽골 두 민족이 각기 분파를 지으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공간이다. 투르크와 몽골 서사시는 주술적 요소와 영웅적 요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서 구비서사시의 보편적 원리를 탐색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특히 '올롱호'가 영웅서사시로 전승된다는 사실은 그 전승집단이 매우 강한 삶의 양상과 방식, 고난과 극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야쿠티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대다수는 이 지역 여러 부족(민족)의 이동과 전쟁, 패배와 승리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주변 정주국가와의 끊임없는 투쟁과 유목민족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그리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불안정한 그들의 생존을 생생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 서사시를 통해서 자부심을 확인하고 긍지를 드높였던 것이다. 그것이 오늘에도 감동을 주면서 남아있는 까닭은 그 내용과 구성이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은 트릭스터도, 천사도, 신도 아니고, 불안정한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위대한 인간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에는 기록의 전통이 약하다. 8세기 이전까지는 자기네의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그나마 투르크제국에서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 스텝민족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지만, 그 자료들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빈번한 이동과 침략·전쟁은 자기네 부족의 역사나 혈통을 기록화해서 보관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고, 다른 부족을 아우르고 그들에게 한 혈족이라는 일체감을 즉각적으로 주입시키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기 부족의 결속을 다지고 긍지를 확인하는 공식적 의례가 필요하게 했을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켜 준 것이 바로 구비서사시였을 것이다.⁴⁹⁾

대다수 유목민들은 자기네 사회를 확대된 의미의 가족, 최소 단위의 종족,

48) Nora K. Chadwick, and Victor Zhirmunsky, *Oral Epic of Central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9, pp.3-6.

49)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영웅서사시가 발달하지 않은 것은 일찍이 문자문화가 정착되어 영웅소설이 그것을 대신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동일, 「세계 서사시의 중세화 비교연구」, 『비교민족학』 33권, 2007.

혹은 혈통이나 가계의 원리로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족외혼을 기반으로 하는 가계의 원리는 다수의 유목민 집단을 부드럽게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구조의 근본적인 수정 없이도 외부집단을 자신의 성원으로 적응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그들이 가진 순환적인 시간관념은 반복적인 구전의 전통을 쉽게 전설적인 성격으로 만들어 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전의 전통에서 부족 간의 대결은 여러 가지 교혼을 남겼을 것이다. 각 부족의 통합과 승리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스스로 통합군주가 되기 이전부터 그러한 통합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⁵⁰⁾

유목의 전통이 구비서사시의 풍부한 토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문자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구전의 전통이 기록으로 변할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일수록 풍부한 서사시의 구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중앙집권화된 사회에서는 구비적 형태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일반인들의 구술능력이 쇠퇴하면서 특정인들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알타이 인문벨트 가운데서 서쪽으로 갈수록 이슬람과 같은 기록 종교로 말미암아 구비전통이 쇠퇴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구비서사시는 그 전승집단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유목이동의 체제에서 발전을 보이다가 봉건제로 바뀌거나 중앙집권화로 이행하면 구전의 전통이 기록으로, 서사시의 형태가 보다 산문화되거나 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목의 전통이 매우 뚜렷한 야쿠트족들은 모두가 훌륭한 시인들이다. 특히 야쿠트의 봄맞이 축제 오흐오아호에서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 오오오하이는 우리의 서사민요와 비슷하여 매기고 받기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들은 모두가 즉흥적 작시능력이 뛰어나 이들이 가진 내러티브의 서사성은 구비서사시의 보편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올롱호’는 오늘도 이렇게 전승이 계속되고 있다.

50) 하자노프, 『유목사회의 구조: 역사인류학적 접근』, 김호동 역, 지식산업사, 1990, 322-323쪽.

❖ 참고 문헌

- 김중순, 「야쿠트의 종교혼합 현상에 대한 고찰: ‘아르치 지에테’(Archie Jiete)의 건립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5권, 2011.
- _____, 「야쿠트족의 민족축제 ‘으호으아호’에 관한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29권, 2011.
- _____, 「야쿠트의 현대화된 전통혼례에 관한 상징인류학적 이해 : 빅터 터너의 커뮤니티스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35권, 2013.
- 서대석, 「한국신화와 만주족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7권, 1992.
- 조동일, 「세계 서사시의 증세화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33권, 2007.
- 최기호,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여행 (아시아편)』, 박문사, 2009
- 포르르 오고토옌, 『엘레스 보오투르』, 강덕수 역, 지식과 경영, 2005.
- 하자노프, 『유목사회의 구조: 역사인류학적 접근』, 김호동 옮김, 지식산업사, 1990. 인조실록 34권.
- Alekseev, A.N., “К вопросу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якутского народа,” *Сборник науч. тр. Серия: Филология*. Якутск: Изд-во ЯГУ. 1994.
- Alekseev, A.N., “Древняя Якутия. Железный век и эпоха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Востока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н-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1996.
- Balzer, Marjorie, “The Sakha of the Russian Federation,” Marc Miller (ed.), *State of the Peoples*, Boston: Beacon Press, 1993.
- Biliukina A.A., *Yazicheskie obryady yakytov: Istoky yakutskoi dramy*. Yakutsk, 1992.
- Borisova, A. and Protopova, T., “Epos and an Ancient Festival of Sakha People,” *Black Sea, Karadeniz*, 5(19), 2013.
- Chadwick, Nora K. and Zhirmunsky, Victor, *Oral Epic of Central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9.
- Crossley, Pamela Kyle, “An Introduction to the Qing Foundation Myth,” *Late Imperial China* 6(2), 1985.
- Ecsedy, I. and Sundermann W., “The Rise of the Turk Power,” *History of Humanity: From the Seventh Century B.C. to the Seventh Century A.D.* 3, ed. by J. Herrmann and E. Zurcher, London: Routledge, 1996.
- Emelyanov N.V., *Siiyety yakutskyykh olonkho*, Moscow, 1980.

- Forsyth, James,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Gogolev, A.N., "The Yakut: Problems of Ethnogenesis and Cultural Formation," *Sakhapoligrafizdat* 3, 1992.
- Gogolev, A.N., "Эпико-мифологический мир саха," *Язык. Миф.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ибири* 4, Якутск, 1996.
- Ivanov, Vasily Nikolaevich, "Heroic Epic Olonkho-A Unique Phenomenon in the World Epic Culture,"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22(7), 2014.
- Jessop B. and Wheatley R. ed. *Karl Marx's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Critical Assessments*, London: Routledge, 1999.
- Kulakovskiy, A.E., *Scientific papers*, Yakutsk: Yakut publishers, 1979.
- Kuzmina, A.A., "Из истории изучения олонхо в секторе якут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Института гуманита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роблем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О РАН," *Молодой ученый* 22, 2015.
- Larionova, A.S., "Kylysayh kak fenomen yakutskogo gorlovogo peniya," *Vzaimodeistvie kultur narodov narodov Yakutii v 17-21 vv.* Yakutsk: RNMC IT i SKD im. Kulakovskogo, 2003.
- Nikiforova, V.S., "Зимние сакральные сказывания олонхо," *Лаборатория комплексных геокульту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Арктики: Дорожный проект*, 2015.
- Lévi-Strauss, Claud,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Boston: Beacon Press, 1969.
- Libakova, Natalia M., "Modern Practices of Regional and Ethnic Identity of the Yakuts (North Asia, Russia)," *Life Science Journal* 11(12), 2014.
- Lukina, A.G., "Tantsy v obryade isseakh," *Isseakh – mnogovekovaya traditsiya* 3, Moskva, 1991.
- Mikhaylova, Viktoria, "Representation of Cultural Universals in Identity of the Sakha/Yakuts," *Karadeniz-Blacksea-Chornoye More* 19. on www.ceeol.com, 2013.
- Oiynsky, P.A., *Niyrgun Bootur Stremitelny. Yakutsky geroichesky epos Olonkho*, Yakutsk, 1975.

- Okladnikov, A.P., *History of the Yakut ASSR*, Moscow-Leningrad, 1935.
- Oyunsy, P.A., *Olonkho: Nurgun Botur the Swift*, Folkstone: Renaissance Books, 2014.
- Pukhov, I.V., *Yakut Heroic Epic Olonkho*, Yakutsk, 2004.
- Putilov, B.N., "Typology of Folk History," *Typology of Folk Epics*, Moscow, 1975.
- Reshetnikova, Aiza, *Olonkho: Nurgun Botur the Swift*(애니메이션), 야쿠트민속박물관, 2015.
- Reshetnikova, A., "Performing Traditions of the Musica Embodiment Yakut, Tungus and Tungus-mongol epos," 『계명대학교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5.
- Romanova E.N., *Yakutsky prazdnik Isseakh. Istoky y predstavlenia*, Novosibirsk, 1994.
- Tokarev, S.A., "Происхождение якутской народности," *Краткие сообщения о докладах и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АН СССР*. Т. 9. М., 1941.
- Trepavlov, V.V., "Eve of Statehood in Olonkho (an historian's view of Yakut historic epic)," *Olonkho-Spiritual Heritage of the Sakha People*, Yakutsk, 2000.

❖ ABSTRAC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he Oral Epic *Olonkho* in Yakuti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Nurgun Boutur the Swift*

Kim, Tschung-Sun

The Altai Humanities Belt connecting Siberia to Central Asia is very important to the history of civilization. It had a hug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an ancient civil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a variety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field of folklore and anthropology as well as archeology. One of these studies is about the oral epic. The oral epic remains in the form of a unique transmission in Korea, but it wasn't that long ago when it was noted as the component of the Altai Humanities Belt. In that context, some epics from Central Asia, Mongolia, and Siberia were introduced to Korea.

This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conducted to introduce the oral epic *Olonkho* from Yakutia in Siberia to Korean academia. Although it was revealed recently, *Olonkho* is highly valued. The epic study has been buried from the Western point of view, but *Olonkho* is expected to provide a global perspective to the field of epic study. Above all, it contains a very significant clue to a new study because the content and the style of performance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 Additionally, the original form is relatively well preserved. In particular, it explains how human thinking and behaviors have changed in the transition from the mythical age to the heroic age. This change appears in the ethnic history of Yakutia, as well as in the formation process for all Altai countries around the 10th century.

Therefore, this preliminary investigation will be a foundation to facilitate the translation of the voluminous *Olonkho* into Korean, and to conduct full-fledged research on it. In particular, it can motivate a study on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comparison to the tradition of oral epics between Central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i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the Altai Humanities Belt.

Key Words

Yakutia, *Olonkho*, epic, Altai humanities belt, Siberia, Central Asia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